



# 딱 한마디 철학사

천개의바람 | 안소연 글 | 이주미 그림 | 안광복 감수

## 독서 배경 넓히기

• 다음 <딱 한마디 철학사>의 차례에 나오는 철학자 중에서 알고 있었던 철학자에 대해 써 보세요.

머리말 ..... 6



**내가 인을 실천하고자 하면 곧 인은 다가온다**

공자(기원전 551년~기원전 479년) ..... 8

**나는 모른다**

소크라테스(기원전 470년경~기원전 399년) ..... 18



**우리는 두굴에 갇힌 죄수다**

플라톤(기원전 428년경~기원전 348년경) ..... 28

**신앙과 이성**은 신에게 가는 서로 다른 두 길이다

토마스 아퀴나스(1224년경 - 1274년경) ..... 36



**배워서 성인이 된다**

율곡 이이(1536년~1584년) ..... 44

**아는 것이 힘이다**

프랜시스 베이컨(1561년~1626년) ..... 52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데카르트(1596년~1650년) ..... 60

**자연으로 돌아가라**

루소(1712년~1778년) ..... 68



**별이 빛나는 하늘과 내 안의 도덕 법칙이 내 마음을 채운다**

칸트(1724년~1804년) ..... 76



**나는 절대적신을 보았다**

헤겔(1770년~1831년) ..... 86



**신은 죽었다**

니체(1844년~1900년) ..... 94



**말할 수 없는 것에는 침묵하라**

비트겐슈타인(1889년~1951년) ..... 102



**실존이 본질을 앞선다**

사르트르(1905년~1980년) ..... 110



추천의 글 ..... 118

참고 자료 ..... 119





4 다음에서 율곡 이이에 관한 설명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 )



- ① 우리나라 지폐 오만 원권에 실린 인물이에요.
- ② 아홉 번의 과거 시험에서 모두 장원 급제를 했어요.
- ③ 왕에게 여러 차례 상소를 올려 조선의 문제점을 알렸어요.
- ④ 세 살 무렵 정원을 거닐다가 석류 열매가 익은 것을 보고 시를 썼어요.
- ⑤ 제자들이 어리석음을 깨우쳐 세상을 바로 볼 수 있도록 《격몽요결》이라는 책을 썼어요.


5 다음에서 관련 있는 철학자를 찾아 선을 이으세요.

- |                                |            |
|--------------------------------|------------|
| 1) 아는 것이 힘이다.                  | ① 루소       |
| 2) 배워서 성인이 된다.                 | ② 데카르트     |
| 3) 자연으로 돌아가라.                  | ③ 율곡 이이    |
| 4)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 ④ 프랜시스 베이컨 |
| 5) 신앙과 이성은 신에게 가는 서로 다른 두 길이다. | ⑤ 토마스 아퀴나스 |

6 다음에서 프랜시스 베이컨의 '정신의 우상'에 대한 설명이 맞으면 O표, 틀리면 X표 해 보세요.

- |            |   |            |  |
|------------|---|------------|--|
| <p>1) </p> | <p>극장의 우상은 모든 것을 인간 중심으로 해석하는 것을 말해요. ( )</p> | <p>2) </p> | <p>동굴의 우상은 사람마다 환경이나 성격, 처지 등이 달라서 생겨나는 편견을 말해요. ( )</p>       |
| <p>3) </p> | <p>시장의 우상은 언어 때문에 생겨나는 편견을 말해요. ( )</p>       | <p>4) </p> | <p>종족의 우상은 권위가 있거나 유명한 사람의 말이라면 비판 없이 믿어서 생기는 편견을 말해요. ( )</p>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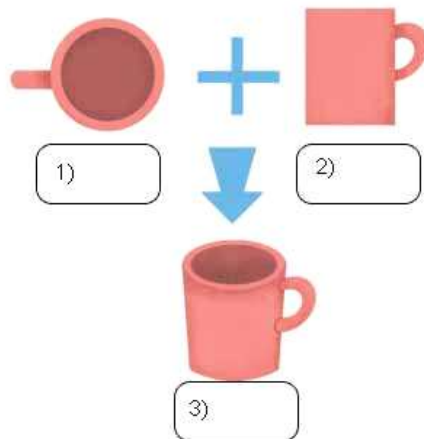
7 다음에서 밑줄 친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써 보세요.



장 자크 루소는 인간은 본래 선한 존재라고 생각했어요.  
“모든 것이 신의 손으로부터 나올 때는 선하나 인간의 손에 들어오면 타락한다.”  
루소는 자연에서 선했던 인간이 도시로 오면 이기적으로 변한다고 봤어요. 서로를 질투하며 더 많이 갖기 위해 끊임없이 경쟁했죠. 강자는 더 큰 부를 얻고 약자는 더 가난해지면서 사회는 점점 더 혼란에 빠졌어요.  
“자연으로 돌아가라.”

8 다음 내용과 어울리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낱말을 써 보세요.

헤겔은 이성이 성숙하는 데에는 ‘모순’ 또는 ‘대립’의 과정을 거친다고 했어요. 컵을 예로 들어 볼까요? 컵은 위에서 보면 둥글게 보이기 때문에 ‘컵은 둥글다.’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이것을 ‘정(正)’이라고 해요. 그런데 컵은 옆에서 보면 사각형으로 보이기 때문에 ‘컵은 사각형이다.’라고 전혀 다른 판단을 내릴 수도 있어요. 이것을 ‘반(反)’이라고 해요. ‘정’과 ‘반’을 종합하면 이 컵은 원통형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돼요. 이것을 ‘합(合)’이라고 해요. ‘정’은 어떤 것에 대한 개념이고, ‘반’은 그것에 대한 반대 개념이에요. ‘합’은 ‘정’과 ‘반’을 합쳐서 나오는 새로운 개념이에요. 오래된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으로 나아가는 과정이 ‘정반합(正反合)’이지요. 헤겔은 진리나 역사는 ‘정반합’의 과정을 통해 발전한다고 보았어요.



---

## 내용 정리하기

---

- 다음에서 니체가 설명한 정신의 세 단계를 자신의 삶에 적용해서 설명해 보세요.
- 

니체는 우리의 정신은 낙타, 사자, 아이의 세 단계를 거쳐 새롭게 태어난다고 보았어요. ‘낙타’는 책임감과 인내심의 정신을 상징해요. 무거운 짐을 지고 사막을 건너는 낙타에게는 짐을 지고 견디는 정신력이 필요하니까요. 사람들은 낙타처럼 책임감과 인내심으로 살아가지만 삶은 괴롭기만 해요. 의무감과 책임감의 짐을 내려놓고 싶어도 거대한 ‘용’의 속삭임 때문에 쉽게 짐을 내려놓지 못해요.

“너는 해야 해, 해야만 해!”

용이 상징하는 것은 기존의 도덕이에요. 낙타는 용의 속삭임을 물리치고 말하고 싶어요.

“나는 원한다.”

그러기 위해서 낙타는 ‘사자’가 되어야 해요. 사자는 용기 있게 용을 물리친 뒤 이제 ‘아이’가 되려고 해요. 하고 싶은 걸 그냥 하는 아이의 삶에는 의무나 도덕이 없고 오로지 놀이와 즐거움만이 있어요. 비로소 아이가 되어서야 자신의 의지대로 살 수 있지요.

---

.....

.....

.....

.....

.....

.....

.....

.....

.....

.....

.....

---

---

정답

---

<1쪽>

(예시) 소크라테스를 알고 있었어요. ‘너 자신을 알라’라는 유명한 말을 한 유명한 철학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라는 말은 들어 봤는데, 데카르트라는 이름은 처음 들어요.

<2쪽>

1 ⑤

2 1) 프로타고라스 2) 플라톤 3) 탈레스 4) 아리스토텔레스 5) 소크라테스

3 늘 생각에 잠겨 있고 우직하고 한결같은 모습일 것 같아요. 열심히 자기 할 일을 묵묵히 하는 사람 같아요.

<3쪽>

4 ①

5 1) ④ 2) ③ 3) ① 4) ② 5) ⑤

6 1) X 2) O 3) O 4) X

<4쪽>

7 인간의 착한 본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자연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말이에요. 자연의 질서를 따르는 것이 인간다운 삶의 모습이라는 뜻이지요.

8 1) 정(正) 2) 반(反) 3) 합(合)

<5쪽>

(예시) 나에게 있어서 ‘낙타’는 피아노를 치는 것이다. 피아노를 치려고 학원에 가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피아노를 잘 치기 위해 수없이 반복해서 치는 행동은 엄청난 인내심이 필요하다. 학원을 빠지지 않고 가는 것도 책임감이 필요하다. 물론 피아노를 열심히 배워서 잘 치면 좋겠지만 너무 재미없고 괴롭다. 하지만 거대한 용이 속삭인다.

“피아노를 잘 치는 멋진 사람이 되어라.”

나는 이 용의 속삭임을 물리치고 말하고 싶다.

“나는 원한다.”

나는 용기 있는 사자가 되어 엄마에게 말한다.

“피아노는 제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피아노 학원을 그만두고 친구들과 운동장에서 축구를 할 것이다. 나는 마침내 하고 싶은 걸 마음대로 하는 아이가 되었다.